

방독면 착용요령

일반방독면 부품설명



방독면 앞면



정화통, 흡입막, 배기막



방독면 뒷면

일반방독면 착용요령



1 휴대주머니를 열어 포장된 방독면과 정화통을 꺼내 은박포장을 제거합니다.



2 정화통 상·하 마개를 제거하고 시계방향으로 돌려 방독면에 장착합니다.



3 방독면 렌즈쪽이 아래를 향하도록 잡고, 방독면을 착용합니다.



4 얼굴에 밀착되도록 머리끈을 조절하고 내부 목조임끈을 조여 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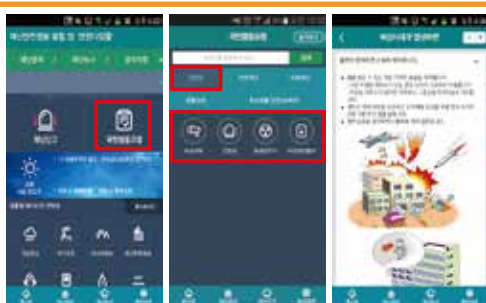


5 정화통의 공기 흡입구를 손바닥으로 막고 숨을 깊이 들며 마셔 안면부가 얼굴에 밀착되는지 확인 후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.

민방공 경보 발령시 행동요령

민방공 경보는 적의 침공에 의해 항공기, 포탄, 화생방무기 등 공격이 예상되거나 실제 공격이 있을 경우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경보체제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습니다.

경보종류	경보방법	발령시 행동요령
경계경보 (적 공격이 예상될 때)	사이렌 1분, 평탄음(----)	- TV, 라디오방송(정부 안내) 청취 - 화재·폭발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원차단 - 대피소 또는 지하시설로 대피 준비 - 영업점은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에게 대피 안내
공습경보 (적 공격이 긴박하거나 진행중일 때)	사이렌 3분, 파상음(~~~)	- 민방위 대원, 경찰 통제에 적극 협조 - 대피소 또는 지하시설로 신속대피 - 차량은 우측에 정차 후 대피 - 야간에는 모든 전등을 소등
화생방경보 (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)	라디오, TV, 확성기 등으로 전파	[화학공격] - 실외 : 고지대나 고층건물의 상층부로 대피 - 실내 : 문을 닫고 외부공기 유입 차단 [생물학공격] - 끓인 물과 깨끗한 음식물만 섭취 - 해충, 애완동물에 의한 전염 주의 [핵무기공격] - 대피소 또는 지하시설로 대피 - 핵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눈과 귀를 막음
경보해제 (적 공격 징후 및 추가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)	라디오, TV, 확성기 등으로 전파	- 부상자 구조활동, 현월에 동참 - 오염시설과 장비는 비누물이나 세제를 이용해 세척



비상시 국민행동 요령! 스마트폰 "안" "안전디딤돌"

※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「안전디딤돌」 다운로드 설치

소화기 · 소화전 사용요령

소화기 사용요령



•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아 (이때 상단 레버만 손으로 잡음)



• 바람을 등지고 3~5m 전방에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함



•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면서 불길 양옆으로 골고루 약제를 방사

소화기 사용시 유의사항



•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



• 지하공간이나 창문이 없는 곳에서 사용하면 질식의 우려가 있음



• 방사된 가스는 마시지 말고 즉시 환기

소화전 사용요령



• 소화전함을 열고 호스를 꺼내어 불이 난 곳까지 꼬이지 않게 펼침



• 소화전 밸브를 왼쪽 방향으로 서서히 돌려서 개방



• 호스 끝부분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불이 난 곳을 향하여 불을 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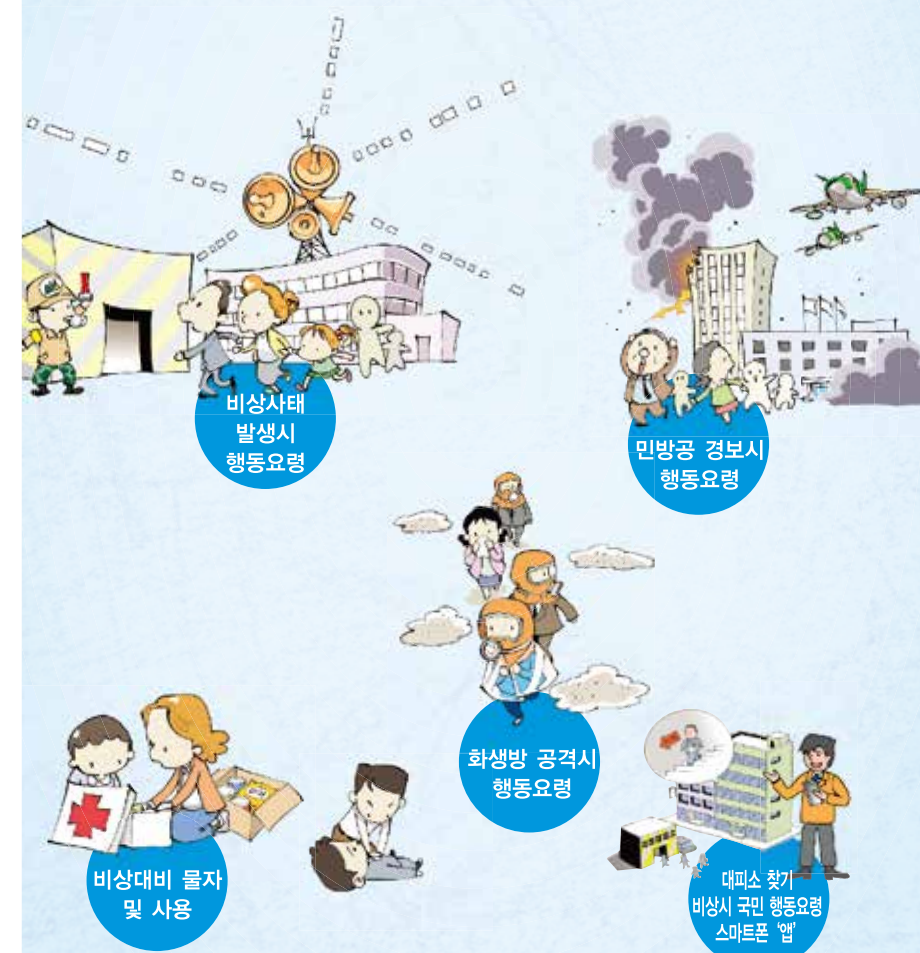
110-760 서울특별시 중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2호
TEL, 02)2100-0557 FAX, 02)2100-5442 www.mps.go.kr



알면 알수록 더욱 안전합니다



비상시 국민행동요령



가정 내 평시 비상대비 물자 준비요령

비상용 생활필수품

- 식량 : 쌀, 가급적 조리와 보관이 간편한 라면, 밀가루, 통조림 등 (30일분)
- 취사도구 : 식기(코펠), 버너 및 부탄가스(15개 이상)
- 침구 및 의류 : 담요, 내의 등
- 라디오(배터리 포함), 배낭, 휴대용 전등, 양초, 성냥 등



유통기한 확인

가정용 비상약품

- 의약품 : 소독제, 해열진통제, 소화제, 지사제, 화상연고, 지혈제, 소염제 등
- 의약외품 : 핀셋, 가위, 붕대, 탈지면, 반창고, 삼각건 등



화생방전 대비물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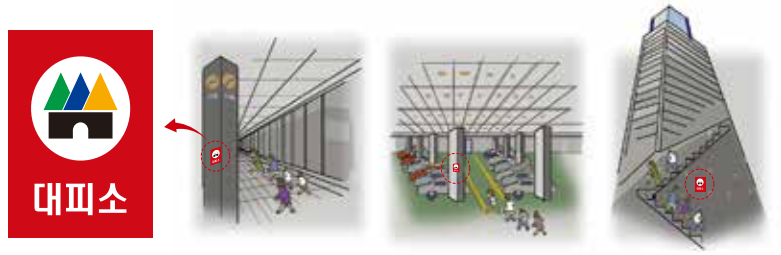
- 방독면 또는 수건, 마스크
- 보호 옷 또는 비닐 옷, 우의
- 방독장화와 장갑 또는 고무장화와 장갑
- 해독제, 피부제독제 또는 비누, 합성세제
- 충분한 접착테이프 (창틀, 문틀 밀폐용)



비상시 대피소 찾아보기

정부는 적 포격, 공습 등을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2만4천여개의 대피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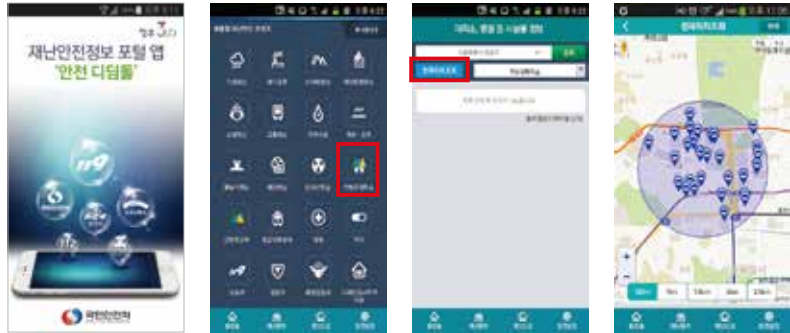
이런곳이 비상시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



지하철역, 지하주차장, 대형건물 지하실 등 대피소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지하시설

스마트폰 '앱'으로 비상시 대피소를 찾아보세요

- (구글 PLAY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'**안전디딤돌**' 검색) 앱 설치
- 앱 초기화면에서 ① 민방공대피소 → ② 현재 위치조회



사전에 '발'로 직접 찾아보고 확인하면 더욱 좋습니다

- 가족이나 회사 동료들과 함께 최대한 대피시간이 짧은 대피소 찾기
- 이동경로에 대형유리, 간판 등 위험요인이 있는지 사전 확인
- 어린이에게는 대피소 약도를 만들어 주고 주기적으로 교육

비상사태시 행동요령

비상시에는 정부의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 및 대비가 중요합니다

집을 중심으로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



- 유언비어에 동요하지 말고 방송을 청취하면서 정부의 안내를 믿고 따름
- 비상대비 물자를 확인 점검하고 필요시 안내에 따라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
- 통신망 마비가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전화사용은 가급적 자제

동원 및 피해 복구에 모두 동참해야 합니다



- 정부의 병력 · 인력 · 물자 동원 대상자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지체없이 응소
- 헌혈, 부상자 진료, 전재민 구호 등 자원봉사 활동에 동참
- 불발탄, 폭발물은 군, 소방,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

정부의 통제에 적극 협조합니다



- 군사작전 및 피해복구를 위한 차량 및 주민 이동통제에 협조
- 생필품 사재기를 하지 말고, 정부가 배급제를 실시하면 적극 협조
- 접적지역(경기 · 인천 · 강원북부) 주민은 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 후방으로 대피

화학공격시 행동요령

화학공격은 포스겐가스, 신경가스, 염소가스 등의 독성을 이용해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

수초 내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



- 독성이 있는 가스, 액체, 고체를 살포해서 공격
- 새, 물고기가 갑자기 병들거나 죽으면 화학공격으로 의심
- 눈이 따갑고 숨쉬기가 힘들며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피부가 빨갈게 되는 증세가 나타남

지형, 풍향을 고려해 대피해야 합니다



- 독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고층건물이나 높은 곳으로 대피
- 실외에서는 오염지역 위치와 바람 방향을 고려하여 대피
- 실내에서는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출입문과 창문을 접착테이프 등으로 밀폐

오염물질은 신속히 제거해야 합니다



- 오염된 물질이나 환자와는 접촉 금지, 오염된 옷은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에 밀봉 처리
- 오염 물질이 묻으면 흐르는 물로 15분 이상 씻어줌
- 병원이나 응급진료소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음

생물학공격시 행동요령

생물학공격은 탄저균, 페스트, 천연두와 같은 병원체를 살포하여 인체에 심각한 질병을 일으킵니다

전염 및 감염여부를 신속히 파악해야 합니다



- 많은 사람에게 고열, 구토, 복통 등의 증세가 나타남
- 뚜렷한 원인없이 동물 · 가축들이 집단폐사하는 경우도 있음
- 피부 접촉, 호흡기를 통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염

오염물질과 환자와는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



- 오염된 물질이나 환자와는 접촉 금지
- 마스크나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신속히 대피
- 대피 후 안전지역에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및 치료

몸과 집안의 위생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



- 음식물과 물은 15분 이상 끓여서 먹고, 몸과 가정의 청결 유지
- 가축이나 애완동물에 의한 전염을 막기 위해 오염여부 확인 및 관리 철저
- 정부 안내 및 최신 정보에 따라 행동하여 추가 감염을 예방

핵무기 및 방사능공격시 행동요령

핵무기공격(열, 폭발, 방사능) 또는 방사능공격(원자력시설 파괴, 방사능 무기)에 노출되면 매우 위험합니다

정부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합니다



- 핵공격이 경보되면 신속히 대피소 또는 지하시설(지하철역, 지하실 등)로 대피
- 핵폭발을 느끼면 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리되 양손으로 눈과 귀를 막고 입을 벌림
- 방사능은 빛, 냄새, 맛이 없어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으므로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행동

방사능에 신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



- 방사능 물질 및 오염장소와 거리가 멀수록 안전
- 방사능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을수록 안전
- 납 · 콘크리트 벽 뒤에 몸을 숨기면 보다 안전

방사능 낙진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



- 핵폭발 이후 방사능 낙진(비, 눈, 먼지 등)이 떨어지면 신속히 대피
- 대피시 비옷, 우산을 이용하여 낙진이 몸에 묻지 않도록 주의
- 안전지역으로 대피할 시간이 없으면 최대한 지하 깊은 곳으로 대피